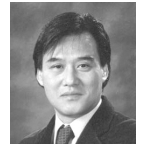


## 한국교육시설학회 제4회 학생공모전 심사평 총평

The Whole Process of the 4rd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이 상 호 / 정회원,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Lee, Sang-Ho / Professor, Yonsei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e  
sanghoyi@yonsei.ac.kr

금번 제4회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은, '창의 지성 교육 실현을 위한 공간'을 주제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1) STEAM 교육을 대비하는 학교건축' '2) 액션러닝에 대응하는 학교 건축' '3) 함께 하는 수업을 위한 학교건축'이라는 세부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1, 2, 3회 공모전이 <우리들의 학교건축>, <내일의 학교건축>, <변화하는 학교>과 같이 포괄적인 주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금번 공모전의 주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제가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출된 판넬들을 심사하는 시간은 심사위원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에 과학기술이 더해진 창의적 융합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건축공간" 등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즐거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금번 공모전은 지난해 공모전에 비해 출품작품의 수는 적었지만, 전반적으로 주제에 대한 해석이 충실하고 작품의 독창성 면에서는 어느 대회보다도 뛰어났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수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교육공간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돋보였던 공모전이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대지의 물리적인 분석도 우수하였지만 대지가 품고 있는 인문적 맥락들을 교육시설과 접목시키려는 노력들을 볼 수 있었으며, 주제에서 개념공간들을 도출해 내고, 그러한 공간들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의 모습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판넬 구성을 포함한 도면의 표현수준도 향상되었는데 특히 컴퓨터 모델링의 표현과 손스케치의 적절한 사용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주제에의 접근은 매우 우수한 반면에 공간으로의 표현에서 아쉬움을 남긴 작품이나,

역으로 뛰어난 공간감에 비해 주제의 해석에 조금은 소홀히 한 작품들은 심사위원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 중에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대상 작품과도 견줄만한 우수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기성작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출품작은 우수성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은 해마다 더욱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됨으로써, 항상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되어 지는 공모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현상은 매년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내용이 보다 풍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건축학도들이 동참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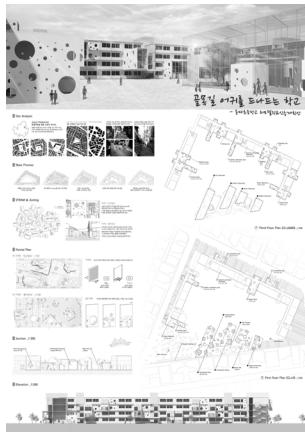
끝으로, 심사에 수고해 주신, 류영모 유엔피 대표님, 박영숙 교육개발원 기획처장님, 박종혁 서울과기대 교수님, 멀리 부산에서 참여해 주신 이길임 동명대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공모전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는 서봉교회장님을 비롯하여 공모전의 기획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총괄해 오신 이현희 가천대 교수님과 양승정 인덕대 교수님을 비롯한 진행요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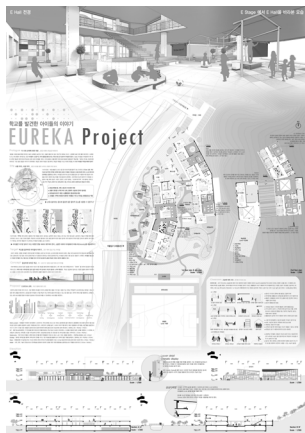
▶ 대상(교육부장관상)

대상에 선정된 '골목길 어귀를 드나드는 학교'는 자신이 제안하고자 하는 바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건축적 해법 또한 명료하고 간결하게 나타낸 가장 설득력 높은 작품이다. 특히, 평범한 주택밀집지역 가운데 위치한 전형적인 초등학교 유형이 안고 있는, 지역과의 소통 부재, 공간적 단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보편타당한 대안적 타입 제시라는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이를 이번 공모전의 화두인 STEAM 개념의 보편적 적용가능성과도 연계하여 해석한 점도 탁월하다. 다만, 강하게 담아내려 한 골목길 공간에 대한 분석결과의 요약이나, 리모델링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기존 상황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이 축소 표현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최우수상(한국교육시설학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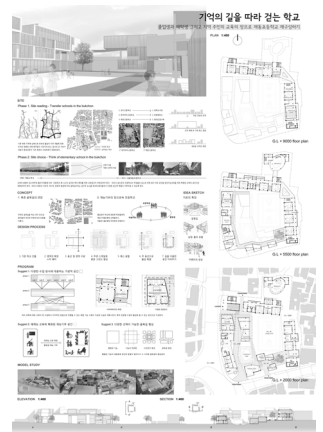
작품 'EUREKA Project'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 그 어느 작품보다 치밀한 사전 조사와 연구 분석이 돋보인다. 실시간 교육현장에서 추구하는 키워드를 명확히 파악하였고 그 핵심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특히, 그것을 평면으로 고스란히 담아내는 열정과 노력이 한 눈에 읽히는 작품이다. 그러나 무척 섬세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훌륭한 결과물에 이르게 되기까지, 구체적인 건축 프로세스의 제시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다.



▶ 우수상(대한건축학회장상)

'기억의 길을 따라 걷는 학교'는 기존 학교를 확장하되 장소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동네의 사랑방과도 같은 친근한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자로 아늑하게 한정된 공간배치와 부분마다 조금씩 다른 공간적 변화, 과거의 흔적인 물길의 복원 등 섬세한 공간구성의

관점에서 무척 우수한 작품이다. 평면구성의 흥미로움이나 전반적으로 훌륭한 건축적 완성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라면, 계획하면서 고민했을 교육현장의 이슈와 그에 연계된 개념이 부각되지 못한 점이라 하겠다.



▶ 우수상(한국건축가협회장상)

'NEW SCHOOL LEARNING SPACE'는 최근의 교육방식 변화에 따른 공간적 변화의 방향을 읽어내어 미래지향적 계획을 제시하려한 치밀함이 드러난 작품이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사각형 교실의 고정관념을 깨는 융통성 있는 삼각형 교실타입의 제시는 교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충실한 개념연구의 성과가 잘 반영된 실험적인 평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단면과 입면, 외부공간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

'AVENUE OF BOOKS'는 몇 개의 학습영역을 연계하는 열린 가로형 도서관공간의 제안이 매우 흥미롭게 와 닿는 작품이다. 명확한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일관성있게 풀어낸 방식이 세련되고, 결과물 또한 군더더기 없이 높은 완성도를 나타낸다. 또한, 보기 드물게 다양한 외부공간의 구성까지 세심하게 계획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교육 프로그램적인 이슈들을 조금만 더 폭넓게 바라보고 다루었다더라면 한결 풍부한 작품이 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